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질적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 육성정책의 필요성 대두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 혁신도시의 경우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2010년 국토해양부의 이전대상기관 부지매각 계획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2011년 상반기까지 8차에 걸쳐 모두 승인되었고, 신청사건립공사 착공도 2011년 들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57개 기관인데, 157개 기관 중 124개 기관은 혁신도시로, 17개 기관은 세종시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 지역으로 이전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과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0개 광역시도로 이전 기관을 배치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끼리 묶어서 배치하였다. 그 결과 대략 시도별로 약 10개 내외의 기관이 배치되었다.

표1.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 경과

2003	06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2004	0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	0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12월)
2006	06월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방향 마련
2007	01월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2008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1~3차),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완료
2009	10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4~6차)
2010	0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7차)
2011	05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8차)

표 2. 시도별 공공기관 배치 현황

시·도	기관수	기능 분류	이 전 기 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 영화 등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대구	11	산업·학술, 가스산업 등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등
광주/전남	15	전력산업, 농업진흥 등	한국전력공사, 한국 KDN,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울산	10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강원	12	광업, 건강생명, 관광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등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북	12	농업생명, 국토개발 등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경북	13	도로교통, 농업, 전력기술 등	한국도로공사, 국립종자원, 한국전력기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경남	11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제주	9	국제교류, 교육연수 등	국제공무원교육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연공관리공단 등

주: 개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제외된 내용임.

2. 2012년 청사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 활성화 예상

지방으로 이전하는 총 157개 공공기관 중 청사 임차 이전 기관(30개)을 제외하면 총 127개 기관이 청사를 신축·이전해야 한다.¹⁾ 모든 신축 이전기관의 건축비는 대략 9~10조원으로 예상되며, 지역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이상을 공동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11.2월 개정)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²⁾

정부는 당초 2011년 말까지 80개 기관을 착공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2011년 12월 말까지 55개 기관만이 착공을 완료했다.³⁾ 2011년에 한 해 동안에 착공을 추진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총 31개 기관이다. 2012년에는 당초 47개 기관이 착공될 계획이었는데, 25개 기관의 착공이 201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012년 착공 기관 수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일

1)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당초 157개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08. 8)에 따른 기관 통폐합으로 147개가 되었으며, 이 경우 신축·이전기관은 120개임.
 2) 이전 청사 건축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제는 현재 2013년 말까지 적용 시한이 연장되어있음.
 3) 12월 말 기준으로 청사건립공사 발주 요청을 완료한 8개 기관까지 포함하면 63개 기관이 착공함.

부 기관의 착공은 2013년으로도 지연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2012년 연내 착공 완료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청사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 기관 수가 매우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약 50~60개 기관이 2012년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2월 말에 이미 8개 기관이 청사건립공사 발주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어서 2012년 연초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이 활발할 전망이다.

시도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착공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부산 혁신도시에 한국남부발전 등 6개 기관이 착공을 완료하여 가장 착공 기관 수가 많은 상황이다. 반대로 강원, 경남 등은 지난 9월까지 착공한 기관이 하나도 없어 진행이 가장 늦은 지역이다.

표 3. 혁신도시 시도별 착공 공공기관 현황

구분	기 착공 기관
부산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국립해양조사원
대구	한국가스공사, 중앙신체검사소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공관리공단, 우정사업정보센터
울산	한국석유공사,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강원	없음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경북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경남	없음
제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주: 2011년 9월 말 기준

3.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 시기는 2013년 이후로 예상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이전지역 부지 조성비로 4조 원,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로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부지조성 작업은 80% 진행되었고,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70% 수준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이전 기관들의 청사건립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4. 2012년 행정복합도시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예산(A)	2011년 예산(B)	2012년(안)	증감(B-A)		비 고
				금액	%	
계	6,951	7,859	8,645	786	10.0	
중앙행정기관	1,375	2,409	4019	1,610	66.8	
광역교통시설	3,676	3,191	2137	-1,054	-33.0	오송역, 당진-대전, 정안나들목, 조치원, 오송역~청주공항
복합커뮤니티센터	778	820	311	-509	-62.1	
그 외	1,122	1,439	2,178	739	51.4	지방 및 국가행정시설 (국립도서관, 총리공관, 교육청사, 아트센터, 우체국 공동구 등)

자료 : 행복도시건설청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2년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착공 지연, 기존 부동산 매각 지역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도 모든 기관의 이전 완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⁴⁾ 특히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연으로 인한 청사건립공사 비용 부족으로 공사 준공 시기 지연이 우려된다.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지방 이전 대상 기관들이 보유한 117개 매각 추진 부동산(10조원 규모)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21개(18%)뿐이다. LH공사도 재정난으로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이 쉽지 않아 지방이전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은 향후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세종시의 경우 2012년 말 1단계 이전 시작, 2012년에 3단계 정부청사 건립공사 발주

한편,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2012년도 세종시 건설 예산을 8천 64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10년 예산 7천 859억원보다 10.0%(786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건립 4천19억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2천137억원, 복합커뮤니티 건립 311억원, 그 외 지방 및 국가행정시설 건립 등에 2천 178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은 2012년 말 1단계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11년 예산 2천409억원보다 66.8%(1천 610억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정부청사 건립 3

단계 공사가 2012년에 발주가 예상된다. 광역교통시설 건설 예산을 보면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오송역 연결도로와 당진-대전 고속도로 정안나들목 연결도로 건설에 각각 157억원, 626억원이 반영됐고, 2012년에 착공되는 조치원 연결도로와 오송역~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비 25억원과 35억원 포함되었다. 총리공관 완공 사업비 121억원과 아트센터 건립비 135억원, 우체국 건립비 53억원, 세종시청사 건축비 440억원, 세종시교육청사 건축비 140억원 등도 2012년 예산에 포함되었다.

4) 2012년 완공 예정인 청사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우정사업조합 사업사무소(경북),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 등임.